

만남

01

2023
통권 587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음악회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Coronation Mass)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열연

창립 77주년 기념음악회를 할렐루야찬양대가 주관하여 11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시 베다니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주제로 아름다운 음악적 감동을 주며 교회창립 기념을 축하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2019년 3월 수요예배 1부 담당으로 창단하여 3년 만에 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관련기사 45쪽)

제공 송재봉 안수집사(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 예배
- 교육
- 선교
- 성도의 교제
-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운성

특별기고 04 독일 최장수 총리 메르켈을 만든 기도 이학영

- 다음세대** 08 질풍노도의 중학생과 함께한 40년 최인옥
10 말투와 표정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최혜윤
12 만만한 할머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순옥
14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김수혁
16 말씀으로 2023년을 준비합니다 청년부

땅끝까지 이르러 20 선교사 자녀들을 섬깁니다 석소연

- 영락의 울타리** 22 부르심의 은혜 김지용
24 사도행전 묵상 김갑수
28 수학으로 다시 보는 명화 <최후의 만찬> 계영희
32 나의 힘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양은정
34 잔치를 준비합시다 김형찬
37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정은기

문화광장 40 웹툰 <하나님께 안기자> 김초롱

43 백년을 살아보니 이창조

44 회복 I 송경희

교회소식 45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예식 거행’ 외

47 은퇴항준지 명단

48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명단

50 이임교역자 명단

52 1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얼어붙은 겨울산에 눈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가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편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편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3:1~3)

연말에 많이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인데, 보통 “연초에 가졌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연초는 결심의 시간이요, 연말은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일을 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작은 일은 매달 1일부터 시작하여 합니다. 큰일은 새해 첫날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월 말 즈음에 새로운 일을 생각한다면, 그는 시작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두 달은 마음 편히 지내고 1월 1일부터 고삐를 당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1월 1일부터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벼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곧’ 따라나섰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뭔가 새롭고 큰 결심과 함께 출발하시겠지요? 그렇다면 무슨 결심을 하시나요? 저도 새해를 맞으면서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큰 결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해가 바뀌었다고 큰 결심을 했다가, 연말에 회개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굳이 연초에 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

문입니다. 매일 결심하면 될 일입니다.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의 말처럼 삼일마다 작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큰일을 결심해야 인생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저는 종종 다윗의 소박함에 놀랍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정말 소박하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바랐습니다. 젖 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평안을 소망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작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핵심은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로 결심합시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결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굳이 대단한 결심으로 마음을 짓누르지 말고 소박하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출근할 때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하루에 세 번만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출근 전에 십분만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만 잠시 분주함을 멈추어 1분 기도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역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한번에 한 명씩, 아주 작은 관심을 보내드린다면 어떨까요? 카톡 문안을 두어 명에게 보내고,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차를 대접하고, 그리운 이들에게 한 달에 두 통 정도의 손편지를 쓴다면 어떨까요? 아마 삶에 감성과 감사가 흐를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락교회는 2023년에 1월 한 달을 <기도의 달>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당 문을 열어 기도 짹들과 함께, 혹은 홀로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모이려 합니다. 먼 데 계신 분들이 다 올 수는 없지만, 더 간절하게 더 마음이 모아진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영락오이코스>가 계속되는데, 지난해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묵상했다면, 새해에는 창세기부터 함께 읽으면서 읽은 본문 중에서 한 구절씩 묵상하려 합니다. 2023년에는 80주년 행사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부담을 느끼며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대신 기쁨이, 부담감 대신 자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영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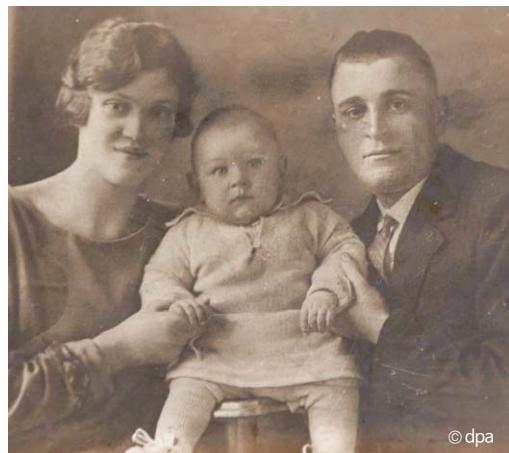
세배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만날**

독일 최장수 총리 메르켈을 만든 기도 “내 아이들아, 좁은 문은 축복의 문이란다”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1954년, 수많은 동독인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 가족은 반대 방향을 걸었습니다. 자유국가 서독을 떠나 공산주의 통제국가 동독으로 온 가족이 아주한 것입니다. 루터교 목회자인 호르스트 카스너(Horst Kasner) 목사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라틴어 교사였던 부인과 생후 6주 가 갓 지난 맏딸 앙겔라를 데리고 동·서독 국경을 넘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는 동독 이주를 결정하기까지 고뇌 속에서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안정된 목회와 가족들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 서독을 떠나 동독으로 온 가족이 옮겨가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 없었던 그가 결단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독지역에도 목자 를 기다리는 양 떼가 많이 있다.”

1945년 동·서독 분단 이후 270만 명 가까운 동독



그레타(어머니), 앙겔라(생후 6개월, 1954년 출생)과
호르스트(아버지)

© dpa

주민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독으로의 이주를 결행했는데, 그중에는 목사들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독에서는 목회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동독 루터교단에서 서독 측에 “수많은 영혼이 목회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하며 목사 파견을 긴급히 요청했고, 카스너 목사가 동독 목회를 자원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훗날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카스너 목사가 동독 이주 여부를 고민하면서 기



이학영 집사
주님의교회
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



앙겔라 메르켈, 1970년



앙겔라 메르켈(동그라미 안)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1971년

도할 때 펼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카스너 목사는 동베를린 교외의 목회자 교육기관 원장으로 정착한 뒤 동독 내 교역자들을 가르칠 때도, 맨딸 앙겔라를 포함한 세 남매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 말씀을 늘 새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동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남매의 교육이 문제였습니다. 동독의 학교 교육과정이 일방적인 사회주의 체제 주입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스너 목사 부부는 맨딸 메르켈과 아들 마库스, 막내딸 이레네에게 사회 현상에 관한 토론을 훈련하며 시각을 넓혀줬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한 앙겔라는 전공으로 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진실은 쉽게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가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었던 동독에서 성장하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몸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보다 기독교의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하자’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신앙의 원칙대로

훗날 ‘메르켈’이라는 성(姓)을 가진 남자와 결혼해 ‘앙겔라 메르켈’로 불리게 된 그에게 1990년 동·서독이 통일돼 하나의 나라가 되면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통일 독일의 대표 기독교 계열 정당인 기독교민주당에서 그를 젊은 인재로 영입해 정치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동독 출신 여성 과학자’라는 타이틀은 각계각층의 인재를 고루 포진시켜야 하는 정당 지도자들의 ‘구색 갖추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기민당 당수였던 헬무트 콜 당시 총리가 1991년 30대 중반의 그를 장관으로 발탁한 배경입니다.

그런 메르켈이 총리로 도약하게 된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치적 대부(代父)라고 할 콜 총리가 1998년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려 퇴진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당시 최장수 총리이자 독일 통일의 주역으로 초대 통일독일 총리였던

콜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을 맞았다고 해도, 기민당 내에서는 그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때 메르켈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콜 없이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로 기민당 의원들의 마음을 추슬렀고, 콜 총리에게는 정치적 결정 타를 날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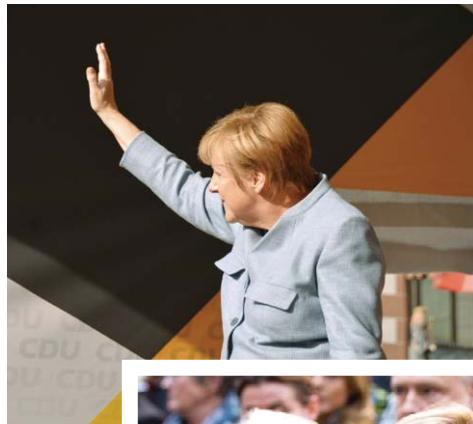
이런 메르켈을 두고 “비정하다”, “의리가 없다”, “정치적 기회 포착에 능하다” 등의 뒷말이 무성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사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수없이 교육받은 ‘원칙 중시’가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50세를 갓 넘긴 나이에 독일 총리로 취임한 그가 작년 9월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6년이나 재임하면서 ‘독일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것은 이런 ‘원칙의 정치’를 흔들림 없이 편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앞뒤가 꽉 막힌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에 맞춘 대화와 포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말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를 긴장시켰던 재정위기,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등 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원칙에만 함몰되지 않고 유연한 포용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외면한 100만 명 넘는 난민을 독일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르켈의 모습을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찬사가 쏟아졌

메르켈 총리(중앙)와 아버스 카스터 목사와 어머니



메르켈 총리(중앙)와 아버지 카스터 목사와 어머니

© KAS/Sabine Widmaier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어릴 적부터
충실한 신앙훈련을 받은 메르켈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젖처럼
항상 먹었다”고 회고한다.

Angela Merkel



지만, 메르켈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짚고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메르켈이 이렇게 탄탄한 존재로 살아온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임을 늘 새겼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승리(성공)를 원했고, 모든 힘을 그에 쏟았습니다. 둘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견실한 신앙교육이 그를 반쳐줬습니다. 동독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훗날 정치지도자로서 필요 덕목인 자제심과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셋째,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돼라’라는 좌우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소속했던 기민당은 남성들이 중심을 이룬 당이었는데, 작은 발걸음으로 타이밍을 포착해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당의 최고지도자가 됐고 최장수 독일 총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메르켈은 자기 삶을 지켜준 힘으로 ‘사랑’을 꼽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주고자 한 것

도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해 온 결과가 최장수 독일 총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메르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13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는 2005년 하노버에서 열린 ‘교회의 날’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메르켈은 총리 퇴임을 앞두고 가진 고별 열병식에서 세 곡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의 한 곡은 찬송가 ‘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입니다. “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비할 데 없어 온 세상 모든 만물 감사 찬미 노래하네….” 그는 “50년 뒤 역사책에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면 좋겠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노력했다.” 이 한마디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만남]**

질풍노도의 중학생과 함께한 40년

어린 생명들에게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셔서 중등부 교사로서 40년 동안 헌신할 수 있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까마득한 옛날 같은 40년 전, 청년부에서 활동 중이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교사양성부에 대해 알려주셨고,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많은 교육부서 중에서 중등부 부서로 지원한 이유는 故 주선애 교수님의 강의 중 ‘청소년은 이 나라 미래의 꿈이다’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중요한 청소년기의 우리 중학생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데 도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명의 3학년 남학생들을 맡으며 저의 중등부 교사로서의 소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난생처음 들은 순간 그들을 잘 이끌어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가가호호 (家家戶戶) 심방하며 학부모님, 학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열정과 소통의 기억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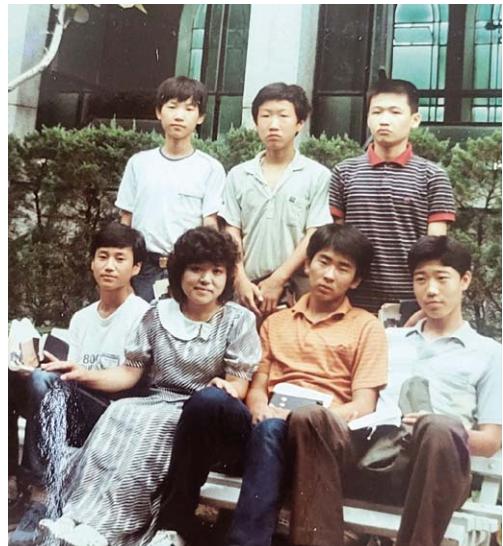
최인옥 권사
성동·광진교구
중등부 교사

그중에서 떠오르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3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공과대학에 가고 싶다는 소망과 꿈이 뚜렷했던 학생! 방에 블록을 한가득 쌓아놓았던 이 학생은 기도와 노력으로 병행하며 마침내 공과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세 월이 흘러 그 학생의 딸이 중등부에 왔을 때 우리 반 학생이 되었고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중등부 교사로 섬겼다는 것을 그 때 새삼 느꼈고 제가 맡았던 수많은 학생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잘 전달했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며 느낀 것은 중등부는 지극히 중요하고 소중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중학생 시기는 ‘질풍노도’의 경험을 동반하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난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도록 돋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중등부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부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 문제, 가족, 또는 친구와의 관계 등 이 나이대에 흔히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로부터 오는 좌절감, 위축감을 이겨내고 모두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상 예배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학생도 그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예배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셨고 모든 교사도 우리 학생들이 멀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애썼습니다. 저도 카카오톡과 ZOOM(화상 회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반 학생들을 지도했고 매일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올려주면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읽고 자기의 신앙 고



첫 교사 맡은 중등부 3학년 3반 학생들
하단 왼쪽 두번째가 필자(1983년)

백을 카카오톡에다 올렸습니다. 중등부에 작년에 처음으로 신앙 장학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배 참석과 수련회 참석, 그리고 YDS와 그루터기 훈련, 말씀 묵상 외 여러 가지 점수로 장학금 받는 자격이 결정되는데, 우리 반 6명 중의 5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격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만남**



말투와 표정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어떤 단어로 소개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교사 1년 차이고 우연한 기회로 중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어, 중등부 교육 현장에서의 느낌을 글로 소개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락교회 중등부는 참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특별함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분들입니다. 중등부 교사로 30년, 40년 이상을 섬기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한 회사를 30년 다니는 것도 흔치 않은 시대에, 한자리를 지키며 한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중등부의 특별함을 만듭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이유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꼭 만나서 묻고 싶었습니다.

교사로 함께 섬기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

점에서 더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교회의 시스템도 바뀌고,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도 해마다 다르게 변화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겸손과 감사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영락교회 중등부 출신 교사들이 많다는 것도 특별함의 하나입니다. 저 또한 영락교회 중등부 출신입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오던 교회를 스스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과의 첫사랑 시기도 모두 중등부 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영적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중등부 때의 익숙함이 성인이 되어서 까지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락 중등부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금의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섬기는 교사들의 마음을 매 순간, 주일마다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등부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중등부의 꽃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점심을 먹던 중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며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학생이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



최혜윤 성도
고양·파주교구
중등부 교사



한 친구를 두고 “친구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 서 슬퍼요.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가 언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 자체가 힐링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중등부에서는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드릴 사랑의 박스에 아이들이 드리고 싶은 식료품이나 물품을 직접 준비하게 했는데, 자신들이 드리는 이 물건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고 기쁘게 준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돋자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락 중등부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입니다. 매 주일 아침 중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 교사 경건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의 목사님과 참으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중등부 예배 때 아이들의 눈과 언어에 맞춰 재미있게 설교해 주시던 목사님이 교사 경건회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교사에게 교사로 섬김에

있어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교사에게는 동역자와 목회자의 자세로,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고 편안한 친구의 자세로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모습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중등부의 특별함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세심하게 말투와 표정 하나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다른 수십 명의 교사와 수백 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공과공부를 나누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위해 말씀과 사역을 통해 마치 접착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중등부 아이들과 교사들, 교역자들을 통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 글을 통해 중등부의 특별함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중등부 교사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남**

만만한 할머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며칠 전 예배 중 흐르는 은혜로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서 잠시 복도로 나갔다. 우리 반 친구의 따뜻함, 배려,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초등부 전도사님 설교가 또 이에 연결되었다. 이런 감동들이 교사를 세워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어릴 적 꿈을 이루어 주시려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교사!

마음 따뜻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 꿈을 가진 나에게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2년 과정의 <영락성서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게 하셨다. 그 배움의 자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1990년 1월,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 선지 33년이 지났다. 그때 만난 아이들이 벌써 40대 중반, 그때의 떨림은 지금도 여전하다. 교사의 첫 걸음을 떼며 ‘나는 결석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친구들은 시편 23편 외우기’를 꼭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어릴 적 나의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집에서 반겨주셨다. 그래서인지 교사인 내가 결석하여 어린 친구들이 쓸쓸함을 느끼게 하기 싫었다. 내가 결석하면 우리 반 친구들은 엄마가 계시지 않은 집에 가는 것처럼 쓸쓸해 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꼭 외우기를 당부한 시편 23편! 성장하면서 혹여 교회에서 멀어져 있을 때라도, 언제 어디서든 시편 23편이 떠오르면 영락교회 초등부가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신앙에 불이 붙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33년 동안 지속해온 시편 23편 외우기! 우리 반에 편성되면 첫 만남 시간에 하는 약속이다.

지난 주일 교회 마당에서 1996년도 제자를 만났다. ‘시편 23편은 영락교회 초등부’라는 말이 그 약속의 증명처럼 들렸다.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나를 보고 달려와 인사하는 제자의 반가움은 따뜻한 온기이며, 청년이 되어 교사로 봉사하는 제자는 든든함이다.

요즘 신입 교사가 적어졌다. 그래서 용기 내어 실천하는 한 가지가 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은 신입 교사부터 5년 차 교사에게 인사하며 안부 묻기이다. 인생의 선배가 인사해주는 것이 좋았고, 친근함이 생겨 잘 적응하게 되어



이순옥 권사
안양·수원교구
초등2부 교사

10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한 교사의 인사가 계속해달라는 부탁으로 들렸다.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낯가림의 시기를 이겨내는 눈 맞춤!

몇 년 전부터 초등부 친구들이 손주 나이가 되었다. 초임 때는 친구 같았던 학부모가 지금은 아들딸 같은 학부모가 되었으니 교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도 교사로 봉사하게 된다면 어린 친구들에게 만만한 할머니 선생님이 되어보고 싶다.

어릴 적 엄마 아빠의 어떠한 무서움도 피할 수 있었던 할머니의 넓은 등 뒤 안전하고 포근한 피난처처럼, 교회학교에 오면 세상의 공부, 차별, 차이를 느끼지 않고 편안한 할머니 선생님이 되는 것 말이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어린 친구들이지만, 부모님을 떠나 지내게 되는 여름성경학교에서 함께 지내보면 아이 어른이 된다. 마음 깊이 신나게 놀지만, 규칙은 지키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등 고만고만한 어울림에 나도 동요되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교사를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몇 개월 고민하는 나에게 주님은 “네가 있을 곳은?” 하고 말씀해 주셨다.

얼마 전 청년 작가 전시 작품 해설에 주 3일 4주간 지원하여 선발되었는데, 지원한 시간과 다르게 배정되어 초등부 시간에 지장이 되었기에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므로 주일 그 시간에는 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는 데 화가 났다. 며칠을 두고 ‘작가의 의도’를 읽고 되뇌다

귓가에 들리는 음성에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다. 옛날 고을에서 섬기는 성황신(神)을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액(厄), 질병, 재해 등을 막아주는 인간의 현실 문제 해결을 비는 곳에 관한 이야기다. “너는 주일에 성황당을 설명하려느냐?” 나는 주중 이틀을 근무하며 성황당 코너에서는 꼭 말해준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이 평안을 바라며 빌던 곳이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에게 근무일수를 줄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 내가 믿는 그분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어 오늘도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언제 어디서든 늘 기억하는 시(詩) 한 편의 말씀 외우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래전 친구 따라 잠깐 출석했던 친구가 써준 글을 다시 꺼내어본다.

고마우신 선생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선생님의 웃음이 들어 있고요.

우리들의 땀방울에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땀방울에는

우리들의 심술이 들어 있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우리들의 장난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웃음 짓는 선생님.

고마우신 선생님! 만남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갔는데?”

“이번에 시험은 잘 봤대?”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흔한 대화입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공부와 성적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올해 고등부에서 8년째 교사로 섬기면서 이러한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과거의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부 학생 시절 학생회와 여러 특활부에서 활동했던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시험 때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어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학교생활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입시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고3 시기 흔히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고 싶

었던 대학 수시에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원망도 했습니다. 대입을 위한 ‘실력’에 치중한 나머지 ‘신앙’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전 수능 기도회’에 참석했습

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신뢰하면서, 정작 우리 삶을 계획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리는 신뢰하지 못했던 저를 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이제껏 세상과 다르지 않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학업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면서, 또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대입에 대한 부담은 한층 줄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여 다니면서, 입학 이후에도 ‘신앙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더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고등부에서 얻은 신앙 성장 경험과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고등부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바로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 때와 마찬가지



김수현 성도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교사



로 학생회와 특활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자! 대신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실력’을 동시에 겸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학교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주말에는 학원에 다닙니다. ‘실력’에는 열중하면서 ‘신앙’은 나중으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고등부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 랜선 제자훈련/QT활동 등을 만들면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둔 지금,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야 합니다. 지난 2년여 시간을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에게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모여도 다시 교회에서 모여야 합니다. 학생회나 특활부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 친구들과 교제하고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확신이 생기고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등부 친구가 여러 문제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 어른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길 오직 그(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면’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기에, 힘든 친구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은 장차 미래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 단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고등부 현장에는 수많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 매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친구들은 이제 교회 현장으로 더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세상과 구분된 삶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우리 모두 ‘실력’만이 아닌 ‘신앙’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만날**

말씀으로 2023년을 준비합니다



청년부 꿈꾸는 땅에서는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통독, 구약성경 통독을 함께 하며 말씀 읽는 시간을 가졌다. 신약성경통독반(4주 완성), 모세오경-시가서반(4주 완성), 예언서반(3주 완성), 역사서반(4주 완성)을 통해 신구약 통합 약 50여 명의 청년이 성경통독을 함께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하는 통독으로 마음 찔림의 은혜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1)

신약통독을 처음 시작하면 보게 되는 성경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자마자 저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걸 언제 다 읽을까?’ 하는 걱정과 지루한 감정이 함께 올라왔고 쉽지 않은 마음으로 통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통독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그 결심은 날마다 시험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독이 한 주씩 지날 때마다 몰랐던 성경 구절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알면서도 외면했던 구절들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체들과 함께 읽어나가니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되었고 그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나 타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족보 같은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지루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족보와 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등한시한 것은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볼 때마다 참 새롭고 쿡쿡 찔리는 것 같지만 이 찔림이 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은혜롭게 함을 믿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통독이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통독에 도전해보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김상근

모든 것이 은혜 옆음을 체험하게 하신 성경 통독

저는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으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 속 깊이 묵상했습니다.



김가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면서도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에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이 부끄러웠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항상 품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통독 도전! 마음으로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We Love You!

제가 원래 꿈꾸던 직업은 바리스타(커피)였고,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카페가 계속 운영되어 거기에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와 청년선교회의 언니와 오빠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맛있는 커피 내려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얼른 우리 교회 카페가 다시 운영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요즈음 우리 청년부 청년선교회 모두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과 위로를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강현영

그래서 제가 “통독 도전! 마음으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부와 청년선교회의 언니와 오빠들과 오랫동안 교회 오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힘든 일 생기면 성경책이나 갓피플앱으로 조금씩이라도 통독에 도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희 모두 큰 사랑과 위로로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통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의 시간으로 채워준 두 번째 신약 통독

6년 전 여름, 성경 학교에서 처음으로 신약을 통독하고 정말 오랜만에 꿈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두 번째 신약 통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신약 통독은 저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통독 초반에는 빠르게 재생되는 통독 영상 속도에 놀라 단순히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눈을 바삐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다양한 주제의 본질 등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 스스로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 등 사랑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17절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과 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간절히 구하는 지혜롭고 사랑을 베푸는 자매가, 딸이, 친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통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통독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영락 청년분들께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임수한

자발적 성경 통독이 가져온 감동

청년부 꿈꾸는 땅을 다니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이 녹음된 영상으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 무렵 통독 모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자발적으로 하게 된 성경 통독을 통해 느끼는 감동은 달랐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며, 설교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서 특히나 저에게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31)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주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말씀 한 절이라도 들어야 한다면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녹음된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경

귀와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 술술 읽혀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언제나 미흡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때뿐이고 꾸준히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신약성경 통독을 같이하자고 권한 아내와 함께 ‘신약성경 통독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통독반’에서는 귀와 눈으로 동시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으로만 읽었으면 언제나처럼 초반에 포기했겠지만, 귀와 눈으로 동시에 읽으니 집중력이 생겨서 술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명은 각 복음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삶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호성

공동체와 함께 하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았는데 공동체를 통해 다시 도전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날 것으로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고 기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불잡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길섭

벅찬 감격과 은혜의 모습으로 묵상하는 청년들

청년부 꿈꾸는땅에서는 최재선 목사님의 지도하에 신구약 성경통독을 기획하여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북상한 것을 나누고, 북상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은혜받고,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말씀과 어우러져 간절한 기도가 되며, 말씀으로 힘을 받아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다. 성경을 혼자 읽어나가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볼 때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청년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것임을 믿는다! 말씀 앞으로 힘차게 행진하는 청년부를 꿈꾸며,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길 소망한다.



홍수미 전도사

선교사 자녀들을 섬깁니다

제4여전도회 MK사역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MK 사역 부스

MK(Missionary's Kids)-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지의 낯선 환경 안에서 문화적, 경제적,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MK들은 한국과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고군분투 적응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떨어져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이방인처럼 느끼며 어려움을 겪



석소연 집사
서대문·은평구구
제4여전도회장

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제4여전도회는 MK사역을 중점 사역으로 시작한 2016년 이후 매년 성도들에게 MK 사역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점차 다양한 사역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4여전도회 회원들 대다수는 30~40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MK의 어려움을 듣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퍼붓는 가운데 홀로 있는 듯 외롭고 힘든 MK에게 작은 우산을 내밀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현지 캠프, 재입국 캠프, 패밀리 데이, 교재비 지원,김장김치 지원, 1대1 후원, MK 박스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기세를 펼치던 2021년부터 'MK 너의 삶을 응원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MK에게 기도 후원과 함께 모바일 상



현지 어린이들에게 사역하는 MK사역



MK 사역을 위한 제4여전도회 바자회

품권을 발송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MK박스는 매달 선정된 MK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지회에서 기도하며 고민하고 편지도 준비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귀국한 MK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비대면 문고리 전달 형식을 취한 지회가 많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MK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온 피드백을 들으면 회원들은 기도를 통해 나누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합니다.

제4여전도회 회원은 선교지에 있는 MK를 1대로 연결하여 매달 후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후원자는 MK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선교지 소식을 통해 그 곳의 형편을 알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등 귀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본인의 자녀와 같은 또래의 MK를 자기 자녀를 생각하듯 기도하며 후원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교재비 지원이나 김장김치를 지원함으로써 MK가 선교지의 부모님과 떨어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4여전도회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베다니광장에서 MK사역 홍보 부스를 운영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서 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지내는 MK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MK라는 이름을 낯설어하는 분이 여전히 많았지만,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가 관심을 보이며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라는 소나기를 맞으며 시간을 보낸 것처럼 MK들은 선교지에서 혹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려운 환경으로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오롯이 혼자 소나기를 맞고 있을 MK에게 작은 우산 하나로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사역을 4여전도회가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MK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우산을 씌워주는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MK들과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4여전도회가 MK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귀한 MK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날**

부르심의 은혜

저의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지독히도 싫어하셨습니다. 목사들은 천국이 있다는 거짓말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직업이라며 천국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처럼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친구들 따라 교회를 가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물론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환경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2004년 1월 5일, 고1이 되던 해에 한국을 떠나 이름도 생소한 먼 땅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이 늘어가며 가정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마침내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즈음에 먹고 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려워진 상황에도 제가 대학만큼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김지용 전도사
교육부, 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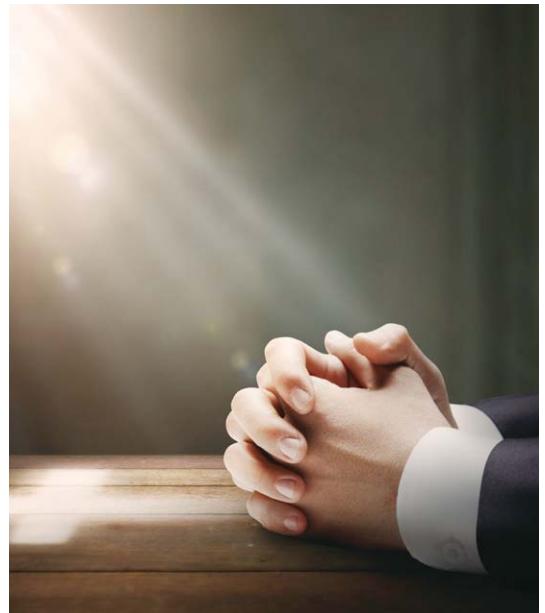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셨는데,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저를 가족친지도 없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찾게 된 곳이 10년동안 한번도 연락한 적 없는 이모부가 선교사로 계신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상황이 많이 힘들지 않았다면 절대 저를 선교사이신 이모부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고살길 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환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선교지 키르기스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며 그분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되면 그분들과 같은 모습의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사가 되길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키르기스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후, 군대를 다녀와서 장로회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키르기스에서부터 꾸준히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말

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쉽게 허락받았던 저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하면 쉽게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신대원만큼은 반드시 입학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까지 받아 모르는 사이에 몇천만 원의 빚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들이 모아놨던 돈으로 빚은 다행히 갚았지만,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누나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이제 조금 살만해져 가고 있던 가정형편이 다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입시공부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막는다는 생각에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마저 무너지며 교회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1년 정도 되던 어느 날 함께 입시공부했던 친구에게 다시 신대원 시험을 보지 않겠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며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안되면 그때 그만두어도 늦지 않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마



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입시에 도전하여 공부한 지 넉 달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 신대원을 무사히 졸업했지만 사역을 하며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 취직하여 1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목사님을 통해 저를 한 번 더 부르셨고 지금 감사하게도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고 단절된 삶을 살 때에 불러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인 된 저를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저를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한결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사도행전 묵상

이 글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느낀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한 동기는, 평소에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기도 했으나, 성경에 깊은 지식이 없으므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시대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너무도 다르므로 사도들의 행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당시의 역사와 인물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당시의 정치와 사회, 경제 현상을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의 이해와 흐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묵상은 내 안에서 사도행전을 찾아 나서는 구체적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들의 행적을 세밀하게 복원(?)하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복음의 지평을 열어나갔는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관련 문헌을 공부하면서 가슴 벽차고 감동할 때마다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래의 글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글인데 여기서는 사도행

전 1장을 주 내용으로 적어봅니다.

알려진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원 누가의 기록이며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theo-philos)를 수신자로 정하여(1:1) 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는 이 방언으로 시라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죽임당하심 및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1~3).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불린 것에 대해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공감이 더해졌고 사도와 제자들에게 임하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확장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1:1~8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통상 8절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글 쓴 목적, 과정, 결과의 기록이라 일컬어지는데, 이 기록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르침과 부탁,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성취 등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밝히고 있듯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록임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구현) 과정을 보여주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행전 전체를 통해 살아있는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구현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시



김갑수
강서·구로·양천교구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 언덕

기까지 노력을 쏟으셨는데,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리하셨음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1:3)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심과 사역,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룩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교회를 통해 실천되어야 할 뜻으로 남겨졌다고 봅니다.

이 실천은 수천 년간이나 막혔던 담을 헐고 복음으로 화합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예루살렘과 유대민족이 가졌던 선민의식,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행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의 사랑과 정신, 즉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지상명령(至上命令,

the Great Mission)’을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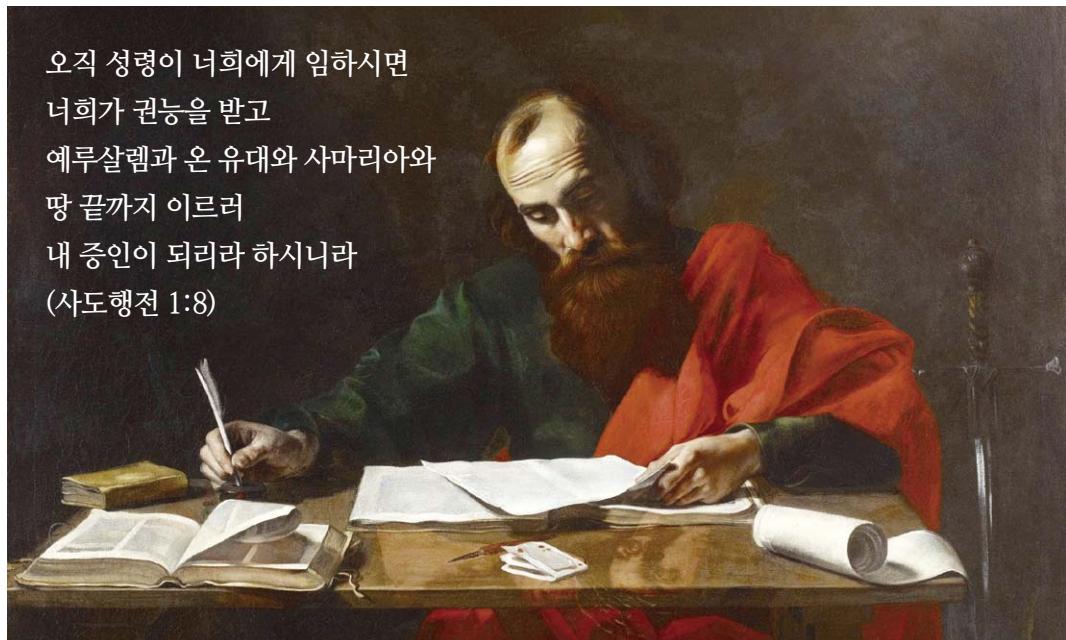
한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추진은 사람-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예수께서 반복해서 명하심을 봅니다.

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1:4)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요엘 2:28~32).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지상에서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교회)이 실천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 부탁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6:9~13)을 떠오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서신서를 쓰는 사도 바울(1620년, 발렌틴 드 볼로냐 작품)

게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영혼 구원의 본질인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것을 따르는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들은 그리스와 로마, 즉 ‘그레코-로만’(Greco-Roman)이 지배하고 있는 신화의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삶의 양식을 거부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사도들은 잔혹하고 비정한 도시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저당 잡힌 채 세상의 삶의 방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불확실성의 도시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예로 듣다면, 그분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혁신과 혼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그의 사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자취를 남겼음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와 비슷한 환경에 놓였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시대와 같이 오늘의 세상도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저마다의 우상을 떠받드는 시대입니다. 달리 보면, 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극도의 이기심으로 점점 사랑이 메마른 사회로 변하고 있음도 목격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인류 구원의 사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용한 에베소 원형경기장

랑의 메시지임을 확신합니다. 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주님의 복 음은 성도 개개인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회심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지위 향상과, 노예해방, 계급,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고, 미신과 우상의 타파 등 인류의 역사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콘텐츠)과 사도들의 행동(실천방식)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지상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너는 받은 감동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라는 도전에 항상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연약한 자기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데 일상에서 다가오는 문제와 갈등 앞에서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

전을 공부한 내용과 삶이 겉돌지 않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함에 처할 때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떠하였나를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한 덕분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 기도에 전념했던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정신은 오늘날 암울한 시대를 사는 모든 계층과 세대에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도전과 불굴의 용기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가능성을 넘어 부흥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천 교본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주의에 함몰되어가는 이 세대와 미래의 진로를 찾다 지쳐있거나 포기한 젊은 세대들에게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성령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방향을 회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만남**

수학으로 다시 보는 명화 <최후의 만찬>

미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이고, 수학은 매우 추상적인 자연과학입니다. 하지만 수학과 미술은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매우 밀접하게 반영해왔어요. 물론 여기서의 수학은 공간의 학문, 기하학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던 유월절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기하학의 발전과 미술의 화풍이 어떻게 그림에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보았던 중세유럽의 사고는 르네상스가 도래하며 의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기적과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절대시하며 르네상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갔습니다.

르네상스인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탐구하는 실험정신이 촉진되었을 때 회화에서는 원근법을, 의학에서는 해부학을 탄생시킵니다. 때를 맞춰 금속활자, 현미경,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체계도 시각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화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기하¹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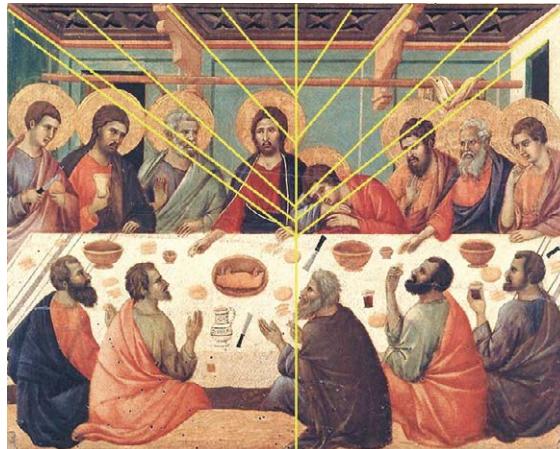
계영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고신대 명예교수

연구하여 원근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세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묘사할 때, 인물의 비중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지요. 예수를 가장 크게, 수제자 베드로를 두 번째로 크게, 그 다음엔 요한, 야고보 등의 순으로 … 그러나 르네상스 화가들은 인체와 동물, 식물을 새롭게 관찰한 후 원근법을 도입하여 하나의 유클리드 공간 안에 예수와 제자들, 천사, 인간을 모두 같은 크기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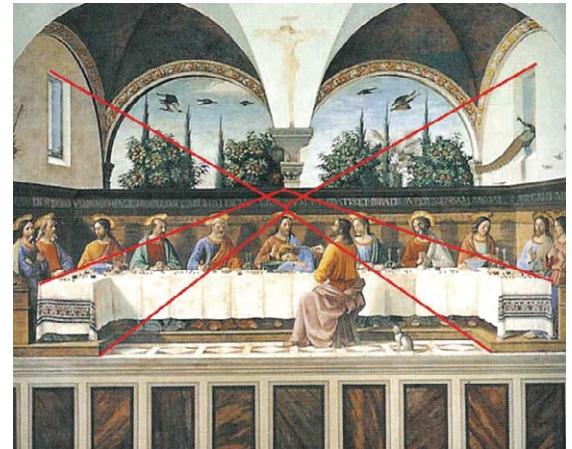
중세 말 13세가 도래했을 때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던 성직자 베이컨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유클리드기하의 원리에 따라 창조했으므로 인간은 그 방식대로 세계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기적으로 중세인이지만 사고방식은 르네상스인 이었습니다. 마침내 15~16세기가 되었을 때 화가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앞다투어 유클리드기하를 연구합니다.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는 미술학교에서 원근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회화를 기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인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증거이지요. 원근법은 일명 ‘투시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그리는 수법입니다. 어린 유아들은 이 원근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대로 그리는 것이지요.

원근법은 르네상스 이전에도 있었지만 수학적인

¹ 고대 그리스에서 받아한 것으로 현재 초·중·고 수학에서 기하는 모두 이것을 지칭합니다.



[그림1] 두초 <최후의 만찬> 1308~1311년, 두오모 오페라미술관



[그림2] 도미니코 기를란다요 <최후의 만찬> 1480년,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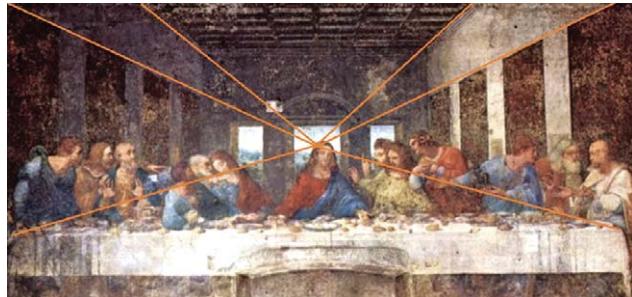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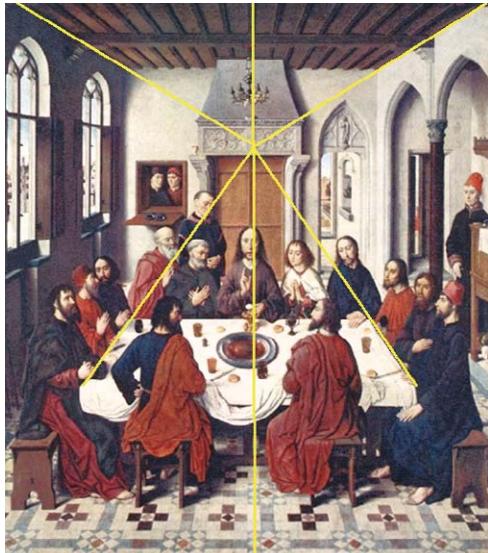
비례에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수학적인 비례에 완벽한 선(線)원근법을 ‘투시화법’이라고 부르는 데 키워드는 ‘소실점(vanishinh point)’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계속 나아가다 멀리 지평선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위치를 소실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라는 주체가 사물이라는 객체를 파악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인 동시에 개인을 존중하는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중세 말 대표적인 화가 두초(1255~1319)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합시다. 3년간 예수와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 모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고 얼굴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의 중세화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근법이 미숙하여 식탁 위에 있는 양고기와 쓴 나물, 빵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아요. 원근법을 시도한 초기 작품으로 천정과 벽의 평행한 선들은 소실점에서 만나는데 소실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림1)

그림2는 산마르코 교회의 수도원 식당 벽면에 그린 기를란다요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실내는

화려한 궁륭으로 오른쪽에는 공작새가 앉아있고, 천장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열린 공간으로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공간이지요.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옷자락 주름은 마치 여인네의 긴치 마처럼 매우 자연스럽지요. 평행한 테이블의 양 쪽선은 정면 기둥에서 만나고, 바닥의 양 끝선의 소실점과 벽의 창문의 두 선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소실점은 2개로 줄었어요.(그림2)

그림3은 15세기 디르크 바우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앞의 작품에서 소실점의 갯수가 5개, 2개였는데 드디어 1개로 줄었습니다. 소실점의 위치는 화폭 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장 모서리의 선과 식탁의 양 끝선이 벽난로 위, 한 점 소실점에 모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와 12제자 외에 집주인 마가처럼 보이는 남성이 예수 뒤에서 서 있고, 빨간 모자를 쓴 시종이 오른쪽과 뒤의 창문 밖에 서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13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려면 꽤 유력한 집안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바닥의 타일은 21세기 지금 우



[그림3] 디르크 바우초 <최후의 만찬> 1464~1467년, 르우벤 산피에르 성당(좌)

[그림4]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1494~1498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에 교회 수도원(우)

리 눈에도 세련되고 멋져 보입니다. 이처럼 서양의 화가들은 수학적 비례에 맞는 원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한 점 투시화법’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들풀 받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하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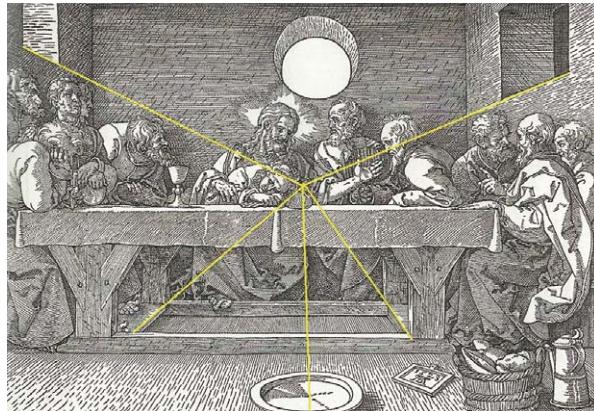
이 작품이 앞의 그림보다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3명씩 4그룹으로 나뉘었고, 멀리 예수의 머리 뒤에 소실점을 셋팅하여 다른 작품에 비해 3차원적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예수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떨쳐버리기 힘들었겠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3년을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할 것이라는 폭풍 같은 선언을 합니다. 스승의 말에 깜짝 놀라 요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포착한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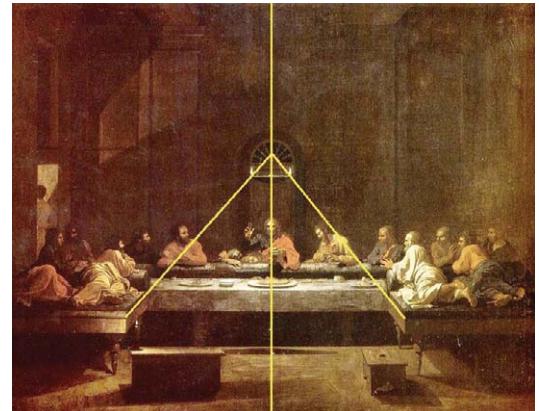
에> 교회 수도원 식당 전체 벽면에 그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림 속 천장 모서리 선과 실제 식당 벽면의 천장 모서리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 빈치의 공간 계산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하여서 수도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수도사들은 예수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한 메뉴는 양고기와 쓴 나물, 뺑, 포도주였으나, 16세기의 다 빈치는 양고기 대신 당시 유행하던 장어 요리를 그렸어요. 같은 주제일지라도 화가가 지향하는 철학과 욕망, 가치관이 반영되곤 합니다.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최후의 만찬>은 서양에서 중세가 물러갔건만 여전히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독교의 핵심은십자가 사건이므로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당연히 의미 있는 주제였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뒤려의 판화로 <최후의 만찬>을 감상해보실까요? 뒤려는 12제자 중 배신자 유다가 나간 후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35절의 말씀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소동하거나 분노로 범석 떨지 않고 예수는 잠든 제자 요한을 품에 안고 사랑



[그림5] 뒤러 <최후의 만찬>



[그림6] 푸생 <최후의 만찬>

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실은 식탁 위에 성배만 있고 빵이 없어요. 바닥의 둑근 접시는 비어있고, 옆 바구니에 빵이 들어있어요.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1523년, 루터는 평신도도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평신도는 빵만 허락되었고, 포도주는 성직자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와 가까운 뉘른베르크에서 뒤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지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판화에서도 벽의 창문 아래 선과 테이블 바닥의 양쪽 선이 빈 쟁반의 중심선과 완전히 1개의 소실점에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판화가 유행한 것은 값비싼 성화 대신에 간편하고 아름다워서 대중적이었고, 부적같이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궁정화가 푸생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앞의 그림들과 다른 색다른 화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17세기는 ‘과학의 세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뉴턴과 라이프니치의 미적분학이 창안되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지식인이 추구했던 가치관은 힘, 에너지, 빛, 속도 등이었지요. 이러한 시

대정신을 동시대 화가들도 예외 없이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고, 미적분학의 ‘순간변화율’의 개념처럼, 화가들도 바로크 미술에서는 순간의 동작을 포착하는 바로크미술의 화풍을 만들어 갑니다. 푸생의 그림은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막나가는 순간을 포착했으며, 제자들은 모두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작이 자연스러운 곳은 짐질방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눕거나 엎드려서 식사를 했다는군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는 바로크 화풍이지만 양식은 고전주의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소실점은 1점인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지나는 중심선에 디자인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의 미술에서 400년간을 수학의 공리(axiom)처럼 지켜왔습니다. 20세기 입체파의 피카소가 화풍을 바꾸어버릴 때까지….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유클리드기하를 연구한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 수학에서 새로운 기하학, 사영기하학(Projective Geometry)이 발아한 것입니다. 미술과 수학이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 다른 문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만남**

나의 힘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에 새가족이 된 2교구 양은정입니다. 저를 새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믿음은 어린 시절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신 후, 가정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손내밀지 않았던 저희 가정에,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의 가정에 빛과 같은 도움의 손길과 더불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오랜 시간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잠깐 불붙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과 비교하면 나만 어려운 것 같은 현실에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불붙었던 작은

믿음 또한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불행하게 하실 수 없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말라갔습니다. 가장 빛나는 20대 때 저는 아침마다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저의 삶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으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마,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많은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일에 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웠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옷자락을 잡고 계셨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20대 후반에 세상 불만 가득하던 저에게 한번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쓰자는 생각에 모든 일을 접고 잊었던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한 것은 꿈꾸던 의대에 진학하여 원 없이 공부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도 항상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많은 친구를 보내 주셨습니다. 닮고 싶은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함께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의대 학



양은정 성도
강동·송파교구

생 시절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게 하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에 힘들어하기보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 손 내밀어 줄 수 있도록 훈련 시키셨습니다.

저는 올해로 종양 환자를 보는 9년 차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학생 시절과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잠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겨 예배에 갈 수 없을 때 병원에서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7년 지났지만, 아직도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수술하고 응급 환자들이 있는 과 특성상 대부분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치이지만 하나님의 치료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시간을 병원에 있다 보니 어느새 마흔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다 지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은 없나 보다. 일이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자’라고 마음을 내려놓던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함께 환자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이코스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이곳 영락교회에 등록하고 당직이 아닌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목사



〈새가족 환영회〉에서 간증하는 필자

님의 오이코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터를 잡지 못하던 저에게 믿음의 터를 새롭게 잡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신 새가족부와 매일 말씀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는 김운성 위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힘들 텐데 왔다면서 반겨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들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투정 부리고 나쁜 생각 할 때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그분 덕분에 예배에 오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미약하고 나의 힘은 약하나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잔치를 준비합시다

1. 세밀한 부분까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 것을 <새가족부> 안에서 느끼곤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모이는 똑같은 경건회인데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새가족부 임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운동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처럼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해지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해마다 드려지는 연례 행사라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새가족 환영회이지만, 새가족부는 매번 새로운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했던 새가족 환영회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좋았던 점들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아쉬웠던 점들은 보완해나갈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김형찬 목사
용인·화성교구
새가족부

영락교회에 뿌리내린 새가족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당일 참석자 접수부터 시작해서 좌석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선물을 전달하시는 장로님들 동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위원은 어느 자리에 언제부터 서 있어야 하는지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예배 후에 이어지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지, 테이블은 어떻게 놓아야 하고, 식사는 몇 시부터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식사 후 사진 촬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점검합니다.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새롭게 점검하는 이유는 새가족 환영회가 교회 잔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석하신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교회가 환대하는 마음을 충분히 경험하는 잔치 자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잔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 감사의 제목들

새가족 환영회 당일, 급한 일로 못 오신 분들이 계셨지만, 본당 가운데 로열석(?)에 앉아계신 백여 분의 새가족을 보니 마음 한편에서 뿌듯함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 한 해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400명 가까이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즘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 부흥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락공동체 안에 해마다 수백 명의 새가족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기존 성도에게 익숙한 교회 환경이 새가족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우리 교회 상황이 새가족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아직 낯설어하는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새가족을 배려해주시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퍼져가길 소망 합니다.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낯선 이들에게 먼저 웃어주고 양보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배려의 분위기에서 새가족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내리고 잘 정착해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두 번째, 참석해주신 새가족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새가족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등록하게 되었는지를 여쭤보니 온라인 예배를 통해

위임목사님 설교를 접하게 되어 등록하신 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또 몇 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등록하신 분들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에, 교회 섬김과 행사에 참여하기보다 조용하게 나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히 쉬고 싶은 주일 저녁에,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서 먼 길을 마다하고 오신 분들, 갓 난아기를 데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제목 세 번째,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했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새가족 환영회를 잘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당일 온종일 뛰어다니며 섬겨주신 새가족부와 교회의 많은 섬김이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17,000보 걸었어요. 저만 아니라 다



들 그러시겠죠?” 말씀하시는 어느 분의 환한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추수감사 음악예배가 함께 드려지면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전해준 연합찬양대와 환영 만찬 자리에서 귀한 특송을 맡아준 호산나 찬양대원들, 그리고 음악부의 섬김이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새 가족 환영회가 가능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어두워진 시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만이 아니라, 예배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참 흐뭇하셨으리란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3. 새로운 잔치로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진 새가

족 환영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락공동체의 천국 잔치는 앞으로도 지속하리라 믿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영락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들마다, 2023년, 말씀 따라 행진하는 영락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이 드려지는 예배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며 그의 백성이 다윗처럼 기뻐 뛰노는 천국 잔치가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락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이곳 영락교회에서 함께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남**

상실과 애도에 대한 이해와 상담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이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가족 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놀라게 했고 글로벌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망 158명, 부상 196명(11월 14일 기준)이 발생했고 사망자 중에 20대 104명, 여성 101명, 이 중 외국인도 2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꽃다운 젊은이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맡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상실과 애도 상담 안내서 참조)에 대해 살펴봅니다.

**비난, 혐오는 트라우마를 악화시키고
공감, 위로는 트라우마를 치유합니다.**



정은기 집사
용인·화성교구
상담부 전문상담위원
정신과 전문의

사별, 상실을 겪을 때

그에 대한 정상적인 애도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서적 반응 : 슬픔, 우울, 불안, 충격, 피로감, 분노, 죄책감, 자기 비난, 외로움, 그리움
- 신체적 반응 : 두근거림, 숨 가쁨, 목과 가슴이 조이는 느낌, 어지러움, 통증(두통, 근육통, 흉통), 쉽게 놀람, 떨림, 근력 약화, 기력 약화, 입 마름, 무감각, 소화불량, 설사, 탈모
- 인지적 반응 : 믿을 수 없음, 죽음에 대한 부인, 고인에 관한 생각에 몰두, 고인과 관련된 침습적 사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의 어려움, 비현실적 감각,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절대자에 대한 원망,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자존감 저하, 세계관의 변화
- 행동적 반응 : 수면 변화, 식사 변화, 병원 방문 횟수 증가, 짜증, 울음, 잦은 한숨, 산만함, 고인을 찾거나 부름, 고인에 대한 꿈, 고인의 유품 간수, 고인을 떠오르게 하는 자극 회피(고인의 방, 사진, 물건 등), 혼란스러운 행동, 쉬지 않고 일에 과도하게 몰두, 주변에 대한 경계, 사회적 고립, 자기관리 소홀, 자기 파괴적 행동, 생산성 감소, 성욕 감소, 중독.

슬픔을 겪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행동

- 애도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현재의 걱정과 욕구, 필요한 도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 애도자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한다.
-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애도 반응이 지속되거나 우울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만남을 권고한다.

상담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상투적이고 진부한 위로를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제 더 편해졌을 겁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가족은 살아 있잖아요’.
- 애도자를 역할 속으로 떠밀지 않는다.
‘극복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네가 이 집의 어른이야’.
- 상실한 대상을 대체하라고 제안하지 않는다.
‘죽은 아이를 대신할 아이를 가지세요’, ‘얼른 새로운 사람을 사귀세요’.
- 다른 사람들과 애도 방식을 비교하지 않는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 삶의 큰 변화를 제안하지 않는다.

건강한 애도

- 울고 싶을 때 운다.
- 자신의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 가족,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한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인다.
- 자신을 잘 돌본다(식사, 수면, 휴식, 운동).
- 사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 자신이 속한 세상의 변화, 그 변화로 인한 슬픔을 알고 그것이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갖춘다.
- 종종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건강한 애도를 방해하는 행동

- 과도하게 정서를 억제한다.
-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자극을 지속해서 회피한다.

- 사별을 부인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거나 결과를 바꾸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 가족과 친구들을 오랜 기간 피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 강박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사고를 하거나 자해 및 자살을 시도한다.
-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흥분 또는 공격적 행동, 지나친 요구 등의 행동을 보인다.
-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식사, 쇼핑, 일, 술, 약물남용, 도박).
- 심각한 절망과 우울한 기분, 활동이 저하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



상실과 애도에 관한 정신건강 수칙

1.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임을 받아 들이세요.
2.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3. 당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4. 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하세요.
5.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6. 휴식, 운동, 균형 있는 식사로 몸을 돌보세요.
7. 음악, 목욕, 명상 등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8. 이사나 이직과 같은 큰 결정은 잠시 뒤로 미루세요.
9. 술을 마시지 말고 흡연을 자제하세요.
10. 사고뉴스는 공신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만 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문기관으로 의뢰가 필요한 경우

- 자살이나 자해 및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우울, 불안, 분노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억장애, 의인화, 비현실감)
- 과도한 억제, 철수, 움직이거나 의사소통 등에서 퇴행을 보이는 경우
- 과도한 감정반응을 보이는 경우(흥분, 울음, 소리 지름)
- 알코올과 같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4~5) **만날**

하나님께 안기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제일 사랑하는 조카 와니랑
단둘이서만 키즈카페에 간 적이 있었다.



김초롱_ 기독교 웹툰작가
『초롱이는 하나님 바라기』,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
한동대 산업정보 디자인학부 졸업

2

같이 신나게 뛰어놀다 잠시 커피를 시키고 돌아왔는데
시야에서 안 보이는 와니.



3

이 안에 있는 줄 알았지만 시야에서 사라지니
순간 마음이 덜컹했다.



그런데... 어디서 "초롱이모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내가 아래에서 이렇게 말 할 수 있었지만...



와니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뛰어가 만아서
장애물을 건너가게 해주고는 잘 통과했다고 칭찬하며 꼭 안아주었다.

4

계단으로 올라가 장애물을 통과하는 코스 2층에
와니가 서서 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내 양손에 전 것을 놓지 못하고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할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손에 전 것을 내려놓는 게 맞나? 아닌가?

이길이 맞아? 아닌가?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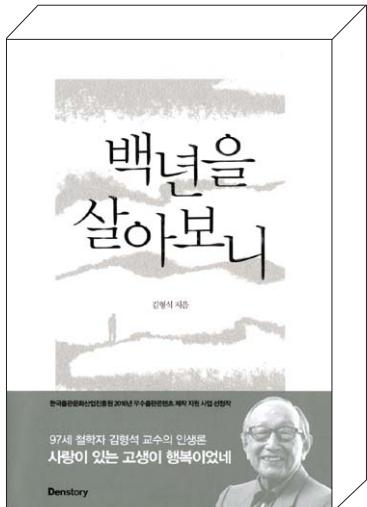
내 머리로 이리저리 생각하느라

6

7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지음 / 덴스토리 / 2016년

우리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란 우리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인생의 여정 주기 가운데 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고 보내는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본서는 이 시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회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2019년 당시 100세가 되신 이 책의 저자 김형석 교수님을 만나고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100년을 살아오신 시대의 지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느끼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선물 받은 이 책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세월을 관통하여 흐르는 깊이 있는 통찰력과 공감 있는 메시지를 잘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늘 우리 각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상관없이 꼭 생각해 볼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든지 인생과 삶에 대해 궁금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늦기 전에 100년을 지나온 저자의 인생 관점을 책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믿음의 시선으로 삶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치기를 원하는 영락의 식구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남다른 고생이 있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합니다!” 고생이 많은 세상살이지만,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이창조 목사
강남교구, 예배위원회(4부)
갈보리찬양대

회복 I (Recovery I)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활짝 열어놓은
마음 깊숙이
다가오신 나의 주님
하늘을 열어 베푸시는 은총
온 땅 가득 채우소서
못 자국난 두 손 가슴에 품고
춤추고 노래하게 하소서
이 모습 이대로
다독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 땅은 감사와 기쁨 가득

지친 일상에서 힘든 시
간을 보냈지만 주님은 하
얀 여백을 채워가게 하셨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
며 십자가의 고통을, 가
시면류관의 찔림을, 황폐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
어 오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림으로 이야기하게 하신 것이다. 마음의 묵상을 화폭
위에 그려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평화와 나음을 누리듯 나의 작품을 통해 보는 이의 마
음이 따뜻함으로 감사로 위로받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남**



송경희 권사_서대문·은평교구

‘새아기, 새가정’ 축복 기도 받으세요



주일 4부예배 시 새아기(생후 3개월 이내), 새가정(결혼 후 1개월 이내) 첫 예배 축복의 시간을 가지며
김운성 위임목사의 기도를 받습니다. 신청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교회 소식

news letter

교회창립 77주년 기념주일 및 제50회 장로, 제51회 안수집사 임직예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4일 창립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월 27일 창립기념음악회가 있었다. 창립 77주년 기념 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하) 브리서 13:1~8’의 제목으로 “영락의 넓은 품을 준비하시고, 6·25 피난민을 품어 오늘에 이른 창립 77주년 기념예배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수십 년 후, 백여 년 후에도 후손들이 창립기념주일을 지킬 것이며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믿고 따르는 영락교회가 되어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기 바란다.”라고 선포했다.

이날 찬양예배 시 제50회 장로 및 제51회 집사 임직예식이 거행되었다. 예배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인도로 박남진 장로의 기도, 노회장 양의섭 목사(왕십리중앙교회)가 “닮으세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임직예식은 당회장 김운성 목사가 장로 피택자 8명과, 안수집사 19명의 임직자 소개 후 서약 및 안수기도, 안수

위원과의 약수례, 당회장의 선포 후, 중부시찰장 정영태 목사(신당중앙교회)가 새로이 임직을 받는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충성된 주님의 일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했으며, 서울노회 장로회장 박승화 장로의 기념품 전달, 임직자 대표 손동호 장로의 인사,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임직자 명단 48쪽)

11월 27일 주일 찬양예배시 베다니홀에서 열린 기념음악회는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송재봉 안수집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제로 “대관식 미사(모차르트)” 등을 연주했다. 음악회는 호산나 챔버 오케스트리가 협연하고, 미사곡 중 소프라노 한나형, 알토 김미경, 테너 조성환, 베이스 안대현 독창자들의 중창과 독창으로 인해 연주회가 더욱 빛났다. 할렐루야찬양대는 창단 3년만에 맞이한 창립 77주년 음악회를 코로나 상황에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3차 전교인 건강세미나 ‘건강검진 이해하기’



의료선교부(부장 김경오 장로)는 전교인 대상으로 12월 4일 오후 2시, 한경직기념관 지하에서 차은숙 교수(이대목 동병원 영상의학과·유방암센터·갑상선암센터)의 ‘건강검진 이해하기’ 주제로 ‘2022년 제3차 전교인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차은숙 교수는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로 완치률을 높이고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몰리는 후반기 전에 적극 검진을 받기를 권했다. 과거에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상 소견 시에는

X-ray 단순촬영, 단층촬영, 초음파검사, MRI, PET, 조직검사 등의 검사와 진료, 치료를 권하며 우리나라는 유방암 치료율과 완치율이 높고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이생활, 건강한 육체활동과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활동 습관을 지키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이 많은 도움이 되니 적극 참여하기를 강조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김운성 위임목사, 21세기포럼 기독문화대상 수상

재단법인 21세기포럼 문화재단 주관 <제16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김운성 위임목사가 민석지도자대상 목회부문을 수상했다.

김 목사는 부산 땅끝교회에서 담임목사로 28년을 시무하며 크게 부흥시켜 기독교계의 목회 토양을 바꿔놓아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 지난 12월 5일(월) 오후 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사모와 아들이 참석하여 대리 수상하고 김 목사는 영상으로 수

상소감을 전했다.

기독문화대상은 21세기 포럼이 기독교 문화 창달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 기독교계의 숨은 봉사자 발굴 및 포상을 통해 기독교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제정 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은퇴항존직 (2022년 12월 31일 은퇴)

장로



박남진



이영철



이종근



심규주



김동욱



이홍노



오계환



박순덕



박종민



현정임

안수집사



이몽래



탁영환



이영순



계훈찬



한기윤



김형철



윤형



권철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2022년 12월 4일 임직)

제50회 장로(8명)



손동호



오현택



임영한



김광식



김주현



김무섭



김철승



장덕권

제51회 안수집사(19명)



김우철



김동환



이호정



임대현



박승근



김준한



박종희



조동일



최영호



차영수



강신웅



이덕주



김성락



김영택



이승호



강현근



설근동



신언병



김한성

이임교역자

백성우 목사 온누리교회로, 김태균 목사 부산 예린교회로,
노대웅 목사 인천 하늘위의교회 개척



백성우 목사

2012년 말 부임하여 성동·광진교구, 중구·용산교구, 강동·송파교구 등을 맡으며 교육부, 대학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를 전담했다. 2022년 11월 27일자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온누리교회로 부임한다.

온누리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http://www.onnuri.org/> 02)793-9686



김태균 목사

2012년 1월 부임한 후 강동·송파교구, 고양·파주교구, 강서·구로·양천교구, 서초교구 등과 전도부, 선교부, 경조부를 맡아 사역했다. 12월 18일자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 예린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예린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선수촌로 43 1405-29

<http://bsyelin.kr/> 051) 532-0096



노대웅 목사

2019년 1월 부서지도 목사로 부임하여 고등부와 학원선교를 맡아 사역했다. 12월 18일자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인천 하늘위의교회를 개척한다.

부서 목사



김윤기 목사(2020)
국제예배



신대군 목사(2018)
영락수련원



진영채 목사(2018)
사랑부, 영락사회복지재단

부서 전도사



황하은 전도사(2019)
중등부



김요한 전도사(2021)
초등부



하종찬 전도사(2021)
유년부



강베나 전도사(2005)
유아부



이사라 전도사(2020)
영아부



윤화평 전도사(2021)
소년부

※ 성명 옆 꽂호는 본 교회 부임 연도
아래 기재 내용은 2022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1월 목회력

1일(주일)	신년주일, 신년예배, 주일예배 성찬(1~5부)
2일(월)~4일(수)	신년기도회
8일(주일)	사랑부, 고등부, 대학부·베드로부, 청년부, 자유인, 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15일(주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28일(토)	신년교사기도회
29일(주일)	사회봉사주일

* 1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2023년 1월호 통권 587호

발 행 2023. 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김태영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나의 2023년 새해목표

- 1.
- 2.
- 3.
- 4.
- 5.

영락의 식구들 각자의 목표를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올 한 해 기도로 실현해봅시다.

HB

영락화랑

회복 I (Recovery I)



송경희, 91.0×65.2cm, Acrylic on Canvas, 2021년

그가 짓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마태복음 12:13)